

금요 양성 2025년 7월 18일 프란치스칸 영성

(단위형제회와 나누시오)

재속프란치스코 회원은 어떤 점에서 다른 천주교 신자들을 구별되는가? (4부)

이번 주에는 우리의 프란치스칸 영성에 대해 살펴보겠다.

우리의 프란치스칸 영성 — 우리의 창설자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의 영성에서 기인된 것이다. **프란치스칸 영성은 육화적이고, 성체성사에 집중되어 있으며 참회적이다.** 성 프란시스의 영성에 대해 배울 때 종종 우리는 “**구유, 십자가, 성체**”라는 말들을 듣는다. 프란시스는 **육화** 즉 하느님이 우리중의 하나가 되시면서 보여주신 키노시스(자기 비움)에 대해 경탄했다. 육화에 대한 그의 신심은 **그레치오**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재현하는데서 가장 확연히 드러났다. 하지만 그것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. 프란시스는 그 역시 성부의 아들이 되고자자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완전히 닮기를 원했다. 너무나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는 “**그리스도의 거울**”로 알려지게 되었다.

성 프란시스의 끊임없는 **십자가 관상**은 육화에 대한 그의 신심의 일부이다. 여기에 하느님이 계신다. 그분은 미친한 구유에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악의, 가장 굴욕적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하느님이시다. 이런 죽음을 닮기 위해서는, 참회와 매일의 회개(메타노이아)가 성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성인은 아셨다. 라 베르나에서 기도하실 때, 그는 두가지를 청하셨는데 하나는 그리스도가 거룩한 십자가에서 견디신 그 고통을 체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었고,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. 프란시스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상처가 그에게 오상으로 새겨짐으로써 받아들여졌다.

이 모든 것이 거룩한 성서안에서 이루어진다. 프란시스는 우리에게 영적 초점을 주는데, 그는 복음 말씀에 따라서 살았고, 우리는 복음을 읽고 기도하며 살아냄으로써 그를 닮는다.

회칙 4조. “*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의 회칙과 생활은,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행하는 것이다. 성 프란치스코는 하느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그리스도를 당신 생활의 영감을 주는 분이자 중심으로 삼으셨다.*”

그리스도는 성부께서 주신 사랑의 선물로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며, 우리가 성령을 통해 도달하는 진리이며, 삶의 충만함을 주려고 온 생명이다.

회원은 특별히 복음을 자주 읽어서 복음에서 삶으로, 삶에서 복음으로 나아가야 한다.”

5조 “*그러므로 회원은 형제들 가운데서, 성경과 교회안에서, 그리고 전례 행위안에서, 살아계시고 활동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. “주님의 지극히 거룩한 몸과 피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지극히 높으신 아드님을 내 육신의 눈으로 결코 보지 못한다” 고 말씀하신 성 프란치스코의 믿음이 회원의 성체성사 생활에 대한 영감이 되고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.*”

8조. 예수께서 성부의 참 흡송자이셨던 것과 같이 회원도 기도와 관상이 자신의 온 존재의 활동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⁴. 회원은 교회의 성사 생활, 특히 성체성사에 참여하고, 교회가 제정한 형식에 따라 전례기도에 참여함으로써, 그리스도 생애의 신비를 재현해야 한다.

토론과 저널 쓰기 위한 질문들

+당신의 프란치스칸 기도 생활의 중심은 무엇입니까?

+프란치스칸 영성에 대해 말한 회칙 조항들을 읽은 후에, 매일의 기도 생활을 변경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?

+ 미사, 복음, 성무 일도- 이것들이 당신의 기도 생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성찰해 보시오. 이 기도 생활이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나누거나 적어 보시오.